



"강아지도 닳새면 주인을 안다"

뜻: 짐승인 강아지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안다. 그러니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은혜 · 배은망덕 · 도리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강	아	지	도	↓	닳	새	면
주	인	을	↓	안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강	아	지	도	↓	닳	새	면
주	인	을	↓	안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ㄱㅇㅈㄷ] [ㄷㅅㅁ] [ㅈㅇㅇ] [ㅇㄷ]

웹에서 보기

